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1/2차년도)
2. 출장목적: 일본의 수입 채소·화훼류 경쟁구조 파악 및 한국산의 문제점, 시장에서의 평가, 도매시장의 상세 거래내역 조사 및 데이터 취득 등
3. 출장지역: 일본 동경, 이바라기현, 오사카 일원
4. 출장기간: 2010년 10월 31일~11월 4일 (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박기환

6. 출장일정

일자	주요 업무	비고
10.31 (일)	○ 김포 → 하네다 ○ 동경 인근 슈퍼 등 방문	
11. 1 (월)	○ 오타 도매시장 방문 ○ Dole Japan 방문	
11. 2 (화)	○ 플로라 인터네셔널(フローラ・インターナショナル) 방문 ○ 동경 → 치바(千葉)시 이동 - 유한회사 다이진(大仁) 방문 ○ 치바(千葉)시 → 동경	
11. 3 (수)	○ 동경 → 오사카 이동 - 오사카 츠루미화훼도매시장 방문 ○ 오사카 → 교토 이동	
11. 4 (목)	○ 일본 채소 소물리에 협회 방문 ○ 關西공항 → 김포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오타시장 동경청과주식회사	영업본부 과장보좌	加瀬正孝	03-5492-2041
주식회사 Dole	야채상품부 매니저	梁 亨模	03-3237-1489
フローラ インターナショナル	영업부장	川満 浩	03-3513-6881
유한회사 大仁	대표이사 실 장	金 東燦 林めぐみ	0436-26-1187
오사카즈루미화훼도 매시장 なにわ花いちば	전산부 계장	森川 雅	06-6914-2300
일본 소믈리에 협회 일본食育者협회	주임연구원	藤掛 進	075-644-6643

II. 주요 출장 결과

1. 일본의 절화 수입 동향

- 일본은 1인당 절화 소비액이 우리나라의 3.6배 이상으로 꽃 소비가 많은 국가로 절화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절화 수입은 국화로 수입액이 2000년 25억 엔에서 2009년 84억 엔으로 3.4배나 증가하는 등 전체 절화 수입액의 32.3%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국화는 2000년대 초까지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았으나, 고랭지에서 재배되어 품질이 좋은 말레이시아산과 저가의 중국산 국화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수입비중이 커지게 되었음.
- 절화 란은 부케나 업무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가격이 타 절화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절화 수입액 대비 비중은 2000년 32.9%에서 2009년 22.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장미와 백합의 수입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각각 8.3%, 2.8%로 낮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대일본 절화 수출의 중심 품목임.

표 1. 일본의 철화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 엔,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철화 전체	17,578 (100.0)	23,858 (100.0)	26,260 (100.0)	27,996 (100.0)	26,342 (100.0)	26,017 (100.0)
장 미	n.a	1,989 (8.3)	2,235 (8.5)	2,223 (7.9)	2,152 (8.2)	2,168 (8.3)
백 합	872 (5.0)	719 (3.0)	524 (2.0)	621 (2.2)	720 (2.7)	736 (2.8)
국 화	2,463 (14.0)	6,573 (27.5)	7,667 (29.2)	8,097 (28.9)	8,171 (31.0)	8,409 (32.3)
카네이션	n.a	4,017 (16.8)	4,734 (18.0)	5,596 (20.0)	5,578 (21.2)	5,627 (21.6)
철화 란	5,783 (32.9)	5,811 (24.4)	6,283 (23.9)	6,853 (24.5)	5,942 (22.6)	5,737 (22.1)
기 타	8,460 (48.1)	4,749 (19.9)	4,818 (18.3)	4,606 (16.5)	3,778 (14.3)	3,340 (12.8)

주: () 내는 철화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 일본의 신선채소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며, 다음으로 미국, 한국, 뉴질랜드 등의 순임.

표 2. 일본의 철화 국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 엔,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7,578 (100.0)	23,858 (100.0)	26,260 (100.0)	27,996 (100.0)	26,342 (100.0)	26,017 (100.0)
한 국	2,038 (11.6)	2,280 (9.6)	1,558 (5.9)	1,390 (5.0)	1,430 (5.4)	1,674 (6.4)
중 국	81 (0.5)	1,634 (6.8)	2,255 (8.6)	2,742 (9.8)	2,542 (9.7)	2,581 (9.9)
대 만	1,088 (6.2)	2,032 (8.5)	2,104 (8.0)	1,827 (6.5)	2,187 (8.3)	2,235 (8.6)
베트남	147 (0.8)	721 (3.0)	829 (3.2)	984 (3.5)	999 (3.8)	1,244 (4.8)
태 국	3,002 (17.1)	3,001 (12.6)	3,414 (13.0)	3,962 (14.2)	3,324 (12.6)	2,983 (11.5)
말레이시아	683 (3.9)	4,543 (19.0)	5,731 (21.8)	6,262 (22.4)	6,285 (23.9)	6,321 (24.3)
네덜란드	3,695 (21.0)	1,290 (5.4)	1,207 (4.6)	1,087 (3.9)	893 (3.4)	723 (2.8)
콜롬비아	1,281 (7.3)	3,037 (12.7)	3,499 (13.3)	3,923 (14.0)	4,208 (16.0)	4,224 (16.2)
뉴질랜드	2,080 (11.8)	1,630 (6.8)	1,585 (6.0)	1,715 (6.1)	1,331 (5.1)	1,259 (4.8)
기 타	3,484 (19.8)	3,689 (15.5)	4,078 (15.5)	4,104 (14.7)	3,141 (11.9)	2,774 (10.7)

주: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 중국산 신선채소의 수입은 200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멜라민 파동 등 중국산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이후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
- 절화는 기후조건이 좋고 저가격 형성이 가능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나 한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2.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구조

2.1. 파프리카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는 일본시장에서 뉴질랜드 및 네덜란드와 경쟁하고 있음.
-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덜란드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양분하는 구조였음.
- 그러나 국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증가로 대일본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반면, 네덜란드산의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 일본의 국별 파프리카 수입 실적

단위: 톤,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0,326 (100.0)	25,914 (100.0)	22,803 (100.0)	21,811 (100.0)	22,424 (100.0)	24,812 (100.0)
한 국	2,023 (19.6)	17,764 (68.6)	14,570 (63.9)	14,447 (66.2)	16,958 (75.6)	17,865 (72.0)
뉴질랜드	1,990 (19.3)	3,061 (11.8)	3,426 (15.0)	3,738 (17.1)	3,182 (14.2)	3,385 (13.6)
네덜란드	6,192 (60.0)	5,087 (19.6)	4,804 (21.1)	3,625 (16.6)	2,283 (10.2)	3,562 (14.4)

주: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2.2. 딸기

- 우리나라의 신선딸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 1,000톤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나, 2002년 일본의 딸기 품종보호제도 시행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한·

일간 협상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딸기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 한국이 육종한 품종의 재배면적 비중이 60% 내외로 확산되고, 여름딸기 재배기술도 향상됨에 따라 일본의 한국산 딸기 수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대 신선딸기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일본의 국별 딸기 수입 실적

단위: 톤,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5,527 (100.0)	3,947 (100.0)	4,038 (100.0)	3,842 (100.0)	3,279 (100.0)	2,992 (100.0)
한 국	1,103 (20.0)	159 (4.0)	172 (4.3)	169 (4.4)	191 (5.8)	248 (8.3)
미 국	4,197 (75.9)	3,789 (96.0)	3,867 (95.7)	3,665 (95.4)	3,087 (94.2)	2,744 (91.7)

주: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 한편, 주로 잼 제조용 등으로 이용되는 냉동딸기 수입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저가의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현재는 6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한국산도 2000년대 초에는 비중이 8% 정도 차지하였으나, 중국, 칠레 등 저가의 냉동딸기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로 현재는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음.

2.3. 장미

- 일본의 장미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로 스프레이 계통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많으며, 스탠다드 계통은 인도, 콜롬비아, 케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천혜의 기후조건은 물론 네덜란드 등 화훼선진국 진출로 인한 기술이전으로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시장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신흥 수입국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시장에서 장미는 수입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5. 일본의 국별 장미 수입 실적

단위: 천 본, %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55,674 (100.0)	79,958 (100.0)	82,326 (100.0)	78,119 (100.0)	76,190 (100.0)	83,362 (100.0)
한 국	18,254 (32.8)	19,049 (23.8)	13,799 (16.8)	9,722 (12.4)	10,058 (13.2)	15,039 (18.0)
네덜란드	6,097 (11.0)	3,790 (4.7)	3,110 (3.8)	2,375 (3.0)	1,833 (2.4)	1,425 (1.7)
인 도	23,718 (42.6)	37,053 (46.3)	39,540 (48.0)	36,747 (47.0)	30,401 (39.9)	27,943 (33.5)
베 트 남	2,660 (4.8)	3,849 (4.8)	4,237 (5.1)	3,809 (4.9)	3,215 (4.2)	4,437 (5.3)
중 국	843 (1.5)	3,042 (3.8)	2,539 (3.1)	1,447 (1.9)	1,769 (2.3)	673 (0.8)
콜롬비아	82 (0.1)	2,631 (3.3)	2,725 (3.3)	3,317 (4.2)	4,944 (6.5)	6,694 (8.0)
에콰도르	253 (0.5)	2,891 (3.6)	2,514 (3.1)	2,609 (3.3)	2,999 (3.9)	3,726 (4.5)
에티오피아	-	-	1,019 (1.2)	4,921 (6.3)	7,051 (9.3)	8,416 (10.1)
케 나	2,203 (4.0)	3,958 (5.0)	11,370 (13.8)	11,732 (15.0)	12,544 (16.5)	12,905 (15.5)
기 타	1,564 (2.8)	3,693 (4.6)	1,473 (1.8)	1,440 (1.8)	1,375 (1.8)	2,103 (2.5)

주: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

2.4. 백합

- 일본의 백합수입은 2000년 807만 본에서 2006년 664만 본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9년 1,277만 본이 수입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시장 내 수입백합은 2000년도에는 중저가의 한국산 44.6%, 고품질·고가의 네덜란드산 42.4%, 기후가 반대의 뉴질랜드산 10.7%로 3개국이 경쟁구조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물류비 부담 가중과 중저가의 한국산 백합 수입 증가로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되는 백합이 거의 없으며, 한국산이 96.3%까지 더욱 확대되는 등 일본시장에서 한국산이 독점하는 경쟁구조로 변화되었음.

표 6. 일본의 국별 백합 수입 실적

단위: 천 본,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070 (100.0)	7,971 (100.0)	6,644 (100.0)	8,957 (100.0)	10,870 (100.0)	12,772 (100.0)
한 국	3,599 (44.6)	6,589 (82.7)	5,722 (86.1)	8,212 (91.7)	10,121 (93.1)	12,303 (96.3)
네덜란드	3,390 (42.0)	50 (0.6)	21 (0.3)	12 (0.1)	5 (0.0)	8 (0.1)
뉴질랜드	865 (10.7)	4 (0.0)	2 (0.0)	-	0.2 (0.0)	1 (0.0)
대 만	59 (1.6)	140 (1.8)	101 (1.5)	52 (0.6)	109 (1.0)	38 (0.3)
중 국	12 (0.1)	1,099 (13.8)	638 (9.6)	545 (6.1)	265 (2.4)	199 (1.6)
콜롬비아	-	-	-	10 (0.1)	140 (1.3)	163 (1.3)
기 타	146 (1.8)	89 (1.1)	161 (2.4)	126 (1.4)	229 (2.1)	61 (0.5)

주: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

3.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채소·화훼류 가격 및 평가

3.1. 파프리카

- 일본의 파프리카 국별 수입단가는 한국산이 2009년 kg당 291엔, 뉴질랜드산과 네덜란드산은 각각 430엔, 407엔으로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저가로 취급되고 있음.

표 7. 일본의 국별 파프리카 수입단가

단위: 엔/kg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385	335	372	402	337	291
뉴질랜드	517	461	549	587	453	430
네덜란드	438	457	569	586	563	407

주: 수입단가는 수입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 일본 오타(大田)시장의 파프리카 거래내역 >

- 동경도중앙도매시장 내 오타시장에서의 국별 파프리카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산은 kg당 400엔대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산과 네덜란드산은 500~600엔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가격경쟁력은 높다고 볼 수 있음.

<일본 오타시장의 연도별 · 국별 파프리카 도매가격>

단위: 엔/kg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433	442	431	469	522	422	411
뉴질랜드	667	630	549	678	682	681	517
네덜란드	650	556	556	692	730	548	551

<일본 오타시장 전경>



<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평가 >

- 일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파프리카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임.
 - 한국산 파프리카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낮을 때 형상이나 색택 등이 불량한 상품이 수입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음.
- 반면, 네덜란드산 파프리카는 상품성이 우수하고, 손상된 상품이 거의 없으나, 원거리로 인해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함.
- 뉴질랜드산은 계절적으로 일본과 반대이기 때문에 일본 내 파프리카 생산이 적은 시기에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

3.2. 딸기

- 한국산 신선딸기의 수입단가는 2000년 kg당 568엔으로 미국산 844엔의 67.2%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시장에 한국산 여름딸기가 수입되면서 수입단가는 1,700~1,800엔대로 크게 상승하였음.
- 이로 인해 한국산 딸기 수입단가가 미국산의 1.8~1.9배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일본의 국별 신선딸기 수입단가

단위: 엔/kg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568	1,707	1,696	1,814	1,785	1,599
미 국	844	894	977	978	966	825

주: 수입단가는 수입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 일본 오타(大田)시장의 딸기 거래내역 >

- 동경도중앙도매시장 내 오타시장에서의 딸기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28~298톤 내외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딸기의 경우 거의 전량 일본산임.

<일본 오타시장의 연도별 신선딸기 거래실적>

단위: 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매물량	29,138	28,112	28,877	28,924	26,897	28,070	26,009

3.3. 장미

- 한국산 장미의 수입단가는 2002년 1본당 33엔서 2009년 25엔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의 20~30%, 에콰도르의 40~50% 수준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높음.
- 반면,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인도 장미는 15~17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일본의 국별 장미 수입단가

단위: 엔/본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32.6	35.2	25.8	23.5	20.0	24.8
인 도	14.0	11.4	16.3	18.8	16.5	15.0
베 트 남	29.0	25.0	26.2	27.3	25.5	25.2
네덜란드	66.4	78.8	93.5	112.9	104.9	66.1
콜롬비아	20.2	47.4	43.3	33.3	35.4	28.2
에콰도르	42.3	41.1	51.7	52.6	52.9	46.5
에티오피아	-	-	12.0	17.2	32.9	26.4
케냐	20.4	27.9	38.9	40.2	38.7	37.0

주: 수입단가는 수입금액을 검역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日本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

-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스프레이 장미는 1본당 50엔 내외로 케냐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표 10. 일본 오타화훼시장의 국별 스프레이 장미 도매가격

단위: 엔/본

	2006	2007	2008	2009
한 국	-	-	54	53
케냐	73	78	-	50

자료: 일본 동경도중앙도매시장.

< 일본 츠루미화훼도매시장의 장미 거래내역 >

- 오사카 츠루미화훼도매시장 내 なにわ花いちば의 2009년도 장미 거래 금액은 4,122백만엔으로 2005년 4,405백만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프레이 장미의 색상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핑크색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오렌지, 적색, 황색 순임.

<일본 오사카 츠루미화훼도매시장의 장미 거래실적>

단위: 톤

	백색	황색	적색	핑크	자색	오렌지	그린	차색	복색	기타
거래량	44,076	57,420	77,580	164,502	10,567	89,017	35,333	5,934	39,847	23,036

<일본 오사카 츠루미화훼도매시장 전경>



<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장미의 평가 >

- 일본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산 스프레이 장미는 생산국이 적은 상황에서 운임비 등을 고려할 때 수입국 가운데 한국산의 경쟁력이 가장 강함.
 -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병에 걸린 제품이 종종 발견되고, 재배과정에서 습기가 꽃에 남아 반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꽃의 선도가 떨어짐.
 - 한국의 경우 개별농가가 재배한 장미를 수집하여 수출하지만, 타 국가는 기업적 재배형태이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한 상태로 수출함.
 - 더욱이 일본 수출용 농장과 유럽이나 미국 수출용 농장을 별도로 관리함.
- 한국에서 육종한 품종은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 그다지 큰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함.
- 결혼식 시즌에는 흰색 스프레이장미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한국산 장미의 일본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임.
 - 9월의 결혼식 등 이벤트가 많은 시기에는 하계 작형 꽃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륜 중심의 콜롬비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여름철에도 꽃 개화가 잘되고 볼륨감이 있다면 판매가 잘 될 것임.
- Pack 꽃은 수요가 있으므로 한국산 스프레이 장미 등을 이용하여 수출한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한 송이라도 병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병이 없고 꽃에 습기가 머물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인도산은 더운 기온으로 인해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슈퍼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음.

3.4. 백합

- 일본의 국별 백합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한국산은 2000년 1본당 137엔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56엔까지 2배 이상 낮아졌음.
- 대만산 백합은 100엔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콜롬비아 백합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임.

표 10. 일본의 국별 백합 수입단가

단위: 엔/본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136.5	116.3	75.9	67.0	63.3	56.2
대 만	150.1	44.4	67.1	114.2	157.5	115.5
콜롬비아	-	-	-	-	142.4	115.0

주: 수입단가는 수입금액을 검역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日本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

- 한국산 백합의 도매가격은 네덜란드산이나 대만산에 비해 낮은 1본당 80엔 내외로 거래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일본 오타화웨이시장의 국별 백합 도매가격

단위: 엔/본

	한국	네덜란드	대만
2008	78	-	116
2009	81	124	97

자료: 일본 동경도중앙도매시장.

<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백합의 평가 >

- 일본시장 관계자 조사결과, 한국산 백합은 꽃의 크기가 작아 일본산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됨.
- 일본 바이어는 4~5륜의 백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구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농가에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저하된 백합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 시장에서의 평가는 중하위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백합은 행사용 소비가 많은데 철포 백합을 일본에 수출하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백합 생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구근 판매자가 재배 교육·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임.
- 백합 품질은 구근 관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일본의 채소 소믈리에 개황

- 일본의 채소 소믈리에는 2001년 베지터블&후르츠 마이스터 협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채소 소믈리에 협회로 변경하였음.
- 채소 소믈리에는 건강한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와 유기농 채소 레스토랑을 연결하기도 하고, 건강식에 대한 칼럼이나 기사를 쓰기도 함.
- 농가는 채소를 재배하지만 유통과정은 잘 모르고 있으며, 소비자는 채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통되며 어떤 것이 좋은 채소인지 몰라 여러 가지 불신과 불안이 생기는 것임.
 - 이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파악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채소 소믈리에 강의를 개설함.
 - 2001년 10월 채소 소믈리에 강의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때 수강생은 14명에 불과하였음.
 - 2006년에는 12,000명을 넘어섰으며, 2010년 3월에는 30,000명이 넘어서는 등 수강생이 9년만에 3,000배나 증가하였음.
- 주니어 채소 소믈리에 강좌는 과일·채소 커뮤니케이션, 과일·채소 입문, 과일·채소 사이언스, 쿠킹, 베이커리 등의 과목을 배우고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함.
 - 중급 채소 소믈리에 강좌는 생산, 품목, 청과물과 건강, 역사와 시사, 마케팅,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배우고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함.
 - 최상급 코스인 시니어 채소 소믈리에에는 일본에 56명밖에 없으며, 중급보다 훨씬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배우게 됨.
 - 시니어 자격을 취득한 채소 소믈리에에는 대부분 요리 연구가로 활약중임.
- 일본에서 채소 소믈리에 강좌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2009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한국에서 채소 소믈리에 강좌가 개설되었음.
 - 1기 시범 강의에는 29명이 참석하였으나, 3기 강의에는 40명이 참여하는 등 계속 수강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강좌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협의의 목표는 일본 전국 100만 명 채소 소믈리에를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국가를 만들고자 함.
- 소믈리에 강좌에서는 직접 청과물을 구매하여 요리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때 수입 농산물이라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구매가 가능함.
 - 한국산 채소는 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소믈리에 수강생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청과물을 직접 수입할 수 있음.
 - 수입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장개척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한국산 청과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